



역사 속 살아숨쉬는 국새이야기

교안 작성 : 김혜숙
 최모림 글 | 이우정 그림
 도서출판박물관 | 9,800원 | 초등 중 · 고학년

책 소개

왕조시대에 국새는 바로 국가이자 임금이었습니다. 새로운 국왕의 즉위식은 바로 전왕이 쓰던 국새를 물려받는 데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조선은 불행히도 중국에 대해 사대의 관계에 있던 까닭에 제후국을 상징하는 거북을 국새의 손잡이로 사용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황제를 상징하는 용은 중국의 전유물이었기 때문입니다. 1897년 대한제국을 선포한 고종은 황제국의 위상에 맞게 새로운 국새의 제작을 명했으며, 이에 따라 제후국의 상징인 거북 대신 황제의 상징인 용을 손잡이로 하는 국새를 만들었습니다. 이 책은, 언제 처음으로 국새가 만들어졌는지, 국새가 없으면 왕이 되지 못하는지, 영화나 소설에서 보듯이 국새가 역사를 바뀌놓을 정도로 그렇게 중요한 것인지, 국새는 어떤 사람이 어떻게 만드는지 등 국새와 관련한 이야기를 어른들의 시선이 아닌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풀어가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활동 목표

1. 우리나라 국새의 역사, 특징, 제작 과정과 외국에서 사용하는 문장에 대하여 알 수 있다.
2. 인조반정을 통해 국새가 왕을 상징하는 물건임을 알 수 있고 그것을 만화로 표현할 수 있다.
3. 우리나라의 국새와 미국의 문장을 비교해 보고 각각의 특징을 알 수 있다.

생각 열기

역사 속 살아숨쉬는 국새이야기

다음 글을 읽고 빈칸에 알맞은 단어를 오른쪽 <보기>에서 찾아 써 보세요.

- 1 옛날 왕들은 약속을 할 때 나라의 (도장)인 국새를 찍었다.
- 2 ‘도장’은 한자어로 ‘인신’이다. ‘인’은 도장을 말하고 ‘신’은 믿는다는 뜻이다. 따라서 도장을 찍었다는 것은 ()을 지키겠다는 뜻이다.
- 3 우리나라에서 국새가 등장한 것은 환웅이 () 세 개를 받아 백두산의 신시에 나라를 열게 한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 4 국새를 위조하면 ()에 처하는 중죄로 다스렸다.
- 5 ()은 처음으로 ‘새(璽)’자가 들어간 국새를 만들어 청나라와의 사대관계가 끝났음을 선포했다.
- 6 조선시대의 국새는 () 모양이다.
- 7 현재 국새를 만드는 곳은 지리산에 위치한 경남 ()이다.

<보기>

도	장	새
국	약	속
천	부	인
행	산	청
정	고	중
안	참	형
전	거	북
부	봉	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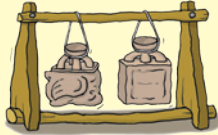
- 8 2008년부터 지금까지 사용하는 제 4대 국새의 손잡이 모양은 ()이다.
- 9 국새를 보관하는 곳은 () 의정관이다.
- 10 예로부터 우리나라는 왕권 중심의 문화였다. 따라서 궁중 문화를 대표하는 것은 ()이다.

생각 펼치기

국새 제작 과정

《조선왕조실록》에 “국새를 새기는 것은 한두 달에 마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국새의 제작과정은 일 년 농사에 비유할 만큼 많은 시간을 필요로 했고, 그것을 임금까지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또한 국새 제작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하늘의 뜻을 담기 위해 국새에 자신의 영혼을 녹여내고 뼈와 살을 깎는 고통을 견뎌내야 했습니다. 국새는 그렇게 완성되었습니다.

1 다음은 국새의 제작과정입니다. 그림에 알맞은 말을 <보기>에서 찾아 써 보세요.

	
1	2
	
3	4
	
5	6
	
7	8

<보기>

1. 손잡이를 조각한다.
2. 대왕가마를 만든다.
3. 금칫물을 거푸집에 붓는다.
4. 거푸집을 만들기 위해 다섯 가지 흙을 섞은 오합토를 준비한다.
5. 밀랍 조각에 흙을 입힌다.
6. 진흙으로 거푸집을 제작해서 말린다.
7. 거푸집을 깬다.
8. 완성된 국새와 인면

외국에도 국새가 있을까?

외국에도 국새가 있을까요? 옛날부터 도장 대신 ‘사인’을 사용하는 나라에서도 국새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들의 특색은 인장 문화권인 아시아 국가들처럼 글씨를 찍는 것이 아니라는 것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문장입니다. 서양에서 주로 발달하였고, 특히 영국의 문장은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① 다음은 서양 각국에서 사용하는 문장입니다. 교재(66쪽)를 참고하여 해당 문장을 사용하는 나라의 이름을 각각 써 보세요.

나라 이름:		나라 이름:	
나라 이름:		나라 이름:	
나라 이름:		나라 이름:	
나라 이름:		나라 이름:	

미국은 우리나라로 치면 국새인 문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국새는 우리나라와 다르게 흰머리 독수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 우리나라의 국새와 미국의 문장을 왼쪽 그림을 참고하여 각각 그려 보세요. 그리고 우리나라 국새와 미국의 문장을 비교해 보고 각각의 특징을 설명해 보세요.

한국의 국새 그리기 		미국의 문장 그리기 	
---	--	---	--

① 우리나라의 국새의 특징 (교재 참고: 51~55쪽, 61~61쪽)



② 미국 문장의 특징 (교재 참고: 63~67쪽)



국새를 차지한 사람은 왕이 되고, 그것을 빼앗기면 왕위에서 물러나야 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왕이 바뀔 때마다 국새를 손에 넣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이처럼 국새는 왕을 상징하는 중요한 물건이었습니다.

인조반정, 국새를 손에 넣은 능양군

우리나라의 국새 관련 전쟁 중 가장 심했던 때는 선조 임금이 그의 둘째 아들 광해군에게 국새를 전해주는 과정이었습니다. 당시 영의정이던 유성룡은 선조에게 왕위를 물려주면 안 된다는 상소를 무려 열네 차례나 올렸습니다. 하지만 선조는 세자에게 국새를 물려주었지요.

일반적으로 왕이 죽게 되면 왕의 부인인 대비가 국새를 가지고 있다가 세자가 왕이 될 때 국새를 전해주었습니다.

조선시대에 새로운 왕이 즉위할 때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국새를 전해주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광해군은 살아 있을 때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이것이 인조반정입니다.

인조, 당시에는 능양군이라고 불렸습니다. 아직 왕이 되지 못한 때였기 때문입니다. 능양군을 임금으로 만들기 위해 궁궐로 쳐들어간 군사들이 당시 임금이던 광해군을 찾았을 때는 이미 그는 어디론가 피하고 없었습니다. 군사들이 궁궐 안을 찾아보니 궁궐 후원 담에 사다리가 걸쳐져 있고 국새가 바닥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급하게 몸을 피하던 광해군이 떨어뜨린 것이었습니다. 능양군을 따르던 군사들은 국새를 가져가 능양군에게 바쳤고, 능양군은 국새를 들고 선조의 부인이던 인목대비를 찾아가 광해군을 왕위에서 몰아냈다고 알렸습니다. 만일 국새를 손에 넣지 못했다면 쉽게 끝날 일이 아니었습니다.



① 위의 글 ‘인조반정, 국새를 손에 넣은 능양군’을 읽고 이것을 4컷의 만화로 표현해 보세요.
